

2015. 12. 10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5년 12월 9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

동물보호과장 박태주 2133-7645

동물정책팀장 김문선 2133-7647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8매

담당자 강윤애 2133-7649

서울시, 서남권역 첫 '반려견 놀이터' 보라매공원에 설치

- 내년 4월 공원 내 향기원 옆 1,500㎡ 규모로 개장... 지속적 주민 요구 반영
- 동물등록 마친 반려견만 입장 가능, 인근 애견가들의 모임장소 활용 기대
- 놀이시설, 음수전 등 반려견 시설과 벤치, 파고라 등 시민편의시설도

- 서울시가 반려견과 애견인이 공원에서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'반려견 놀이터'를 보라매공원에 내년 4월 개장한다. 어린이대공원(광진구)과 월드컵공원(마포구)에 이어 세 번째로, 서남권역에서는 처음이다.
-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과 소유주의 심리적 안정, 건강증진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. 어린이대공원에 747㎡ 규모로 시범 설치('13. 7.)한 이후 월드컵공원에 1,638㎡ 규모로 두 번째 설치('14. 4.)했다.
- 보라매공원은 2013년과 2015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82.8%, 77.3%로 비교적 높은

찬성률을 보였고,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곳이다.

- 서울시는 점차 늘어나는 반려견 인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'15. 11. 24.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라매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.
-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공원 남단의 향기원 옆에 1,500㎡ 규모로 조성된다. 반려견 놀이시설, 음수전, 마킹(반려견 배변) 장소 등 반려견 시설과 벤치, 파고라 등 시민 편의시설, CCTV, 방송시설 등 관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.
- 반려견 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견(체고 40cm 이하)과 중대형견 이용 공간을 분리 설치하고 반려견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직주공간을 마련하는 등 반려견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반영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.
- 운영시간은 화요일~일요일 10:00~20:00(5~8월은 10:00~21:00)이며, 동절기(12~2월)에는 반려견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휴장할 계획이다.
- 사전 동물등록을 마치고 내·외장형칩이나 인식표를 받은 반려견만이 견주와 함께 입장할 수 있으며 놀이터 내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 견주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. 질병감염건,

맹견 등은 입장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.

- 서울시는 현재 세부 설계 중이며 '16년 3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관리 인력 배치 등 준비를 거쳐 4월 개장할 계획이다.
- 특히 놀이터 조성 예정지는 보라매공원의 동문과 남문 사이에 위치해 있어 공원이용의 접근성이 좋고, 기존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주변 수목과의 조화를 이루어 보라매공원 내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또, 옆에 위치한 향기원에 지역 주민들의 반려견 모임이 많아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면 평소 보라매공원을 찾는 동작구·관악구·영등포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애견가들의 모임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한편,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한 시민은 2014년도에는 52,989명(반려견 39,850마리), 2015년도에는 50,018명(반려견 39,654마리)으로 집계돼 연간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꾸준히 반려견 놀이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놀이터 이용 통계(2014년)

놀이터별	반려견수(마리)			반려견주(명)	비고(일평균)
	계	중·소형견	대형견		
계	39,850	32,381	7,469	52,989	212마리, 285명
어린이 대공원	14,280	12,488	1,792	16,343	66마리 75명
월드컵 공원	25,570	19,893	5,677	36,646	146마리 210명

* 운영기간 - 어린이대공원 : 2014. 3. 1 ~ 11. 30(216일간)
 - 월드컵공원 : 2014. 4. 30 ~ 11. 30(174일간)

- 놀이터 이용 통계(2015. 11. 29. 현재)

놀이터별	반려견수(마리)			반려견주(명)	비고(일평균)
	계	중·소형견	대형견		
계	39,654	32,203	7,451	50,018	170마리, 215명
어린이 대공원	12,574	10,463	2,111	14,229	54마리 61명
월드컵 공원	27,080	21,740	5,340	35,789	116마리 154명

* 운영기간 : 2015. 3. 1 ~ 11. 29(233일간)

- 메르스 영향으로 전체적인 이용객 수가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 여파가 2달여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나머지 운영일에 이용객 수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.
- 월드컵공원의 경우, 반려견 놀이터 설치 전후 공원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설치 전('14. 2.) 73.9%였던 공원 이용 만족도가 설치 후('15. 10.) 84.8%로 상승했다.
- 특히, 반려견을 소유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가 설치 전(65%)보다 설치 후(78%) 더 높게 나타나는 등 반려견 놀이터가 애견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□ 서울시는 그동안 공원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광진구·마포구 보건소의 협조로 월 2회(하절기에는 주 1회) 시설 전체 정기 방역과 자체 소독을 실시해왔으며, 상하반기 1회씩 놀이터 내 토양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□ 더불어 지난 4월~10월 매주 토요일에는 동물보호시민단체인 ‘팅커벨프로젝트’, ‘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’, ‘(재)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’과 함께 동물보호교육과 유기견 입양 행사를 열어 애완견 60여 마리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는 등 앞으로 반려견 놀이터가 놀이시설 기능과 더불어 동물복지를 위한 주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“이번 보라매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는 그동안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공원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것”이라며 “반려견 보유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반려견 놀이터가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

※ 별첨: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신규조성 계획

월드컵공원·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이미지

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 신규 조성

목줄없이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보라매공원내에 추가 조성함으로써 남부 지역 시민의 이용 편의 및 동물 복지 수준 제고

반려견놀이터 설치 현황

시설	① 어린이대공원	② 월드컵공원
개장	2013. 7. 31	2014. 4. 30
위치	광진구 능동	마포구 상암동
면적	747m ²	1,638m ²
	대형견 : 288m ²	대형견 : 997m ²
	중·소형견 : 394m ²	중·소형견 : 598m ²
	기타(통로 등): 65m ²	기타(통로 등): 43m ²



조성개요

- 설치위치 : 보라매공원내^③(공원 남단 향기원 옆)
 - ※ 보라매공원내 시설 설치에 대해 공원 이용 시민 82.8%가 찬성 (2013.4월 여론조사)
- 설치규모 : 1,500m²
- 주요시설
 - 놀이터시설(반려견 놀이 시설, 음수전, 격리장 등)
 - 편의시설(벤치, 파고라 등)
 - 관리시설(사무실, 창고, 전기시설, CCTV, 방송시설, 안내판 등)

향후계획



